

한남, 탄소중립·에너지효율 협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키르기스스탄서 K-난방 본격화

비슈케크시청·에너지부 협력 구축
도시·국가 이중 협력 틀 동시 마련
친환경 열공급망 현대화 지원 약속
중앙아 K-난방 교두보 확보 전망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키르기스스탄을 교두보로 'K-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한다.

10일 한남에 따르면, 한남은 몽골, 카자흐스탄에 이어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세 번째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슈케크시청 및 에너지부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슈케크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노후 열공급망 문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효율·친환경 K-난방 도입 전략 수립 및 실행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운영·유지관리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한남 본사를 방문해 K-난방 적용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대사는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지역 난방 현대화 사업과 같은 협력 모델을 키르기스스탄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아이벡 비슈케크 시장은 "비슈케크시 시민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축적된 지역난방 경험은 우리도시의 열공급 인프라 현대화와 환경오염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정용기 한남 사장(왼쪽 두번째)과 아이벡 비슈케크 시장 등이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말했다.

이어 체결된 에너지부와와의 협약은 국가 차원의 협력 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 수립 △바이오매스·태양열·소각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열공급 모델 개발 △스마트 통합 운영 및 IoT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스베코프 에너지부 차관은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 개선,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비슈케크시청과 에너지부와의 협력은 도시와 국가 차원의 이중적 협력 구조를 동시에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의 K-난방

모델을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이 직면한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과 대기 환경 개선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남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K-난방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한남의 선진 기술과 스마트 통합운영, IoT 기반 열공급 관리시스템 등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남 관계자는 "한남의 북방 비즈니스 전략이 단순 기술 협력에서 벗어나 제도적·정책적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MOU가 K-난방 네트워크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K-난방 모델을 이식시키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기술직 중심 하반기 대규모 채용

홈페이지서 16일~23일 접수

한국전력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62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일반공채 421명, 고졸공채 70명, 배전전기원 50명, 연구·전문직 등 기타 79명이다. 오는 16일부터 일반공채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채용인원의 약 80%는 △현장안전 강화 △전력망 건설 등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공채 사무직은 학력·전공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기술직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와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는 서류·필기전형에서 우대된다. 한전은 채용과 동시에 전력망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도 병행한다. 전 직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와 안전 패트롤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일반공채 지원서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한전 채용 홈페이지(recruit.kepc.co.kr)에서 접수하며,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1월 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총수일가 주식 보상 확산… '세습 지원' 논란

공정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공개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와 임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그룹은 총수 2세와 직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계약을 맺어 '세습 경영'의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 중 13개 집단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353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유형은 약정 체결 뒤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 유형이 가장 많은 188건이었다. 이는 총수 2세에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대규모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이외 ▲스톡그랜트(Stock Grant)

51건 ▲PSU(Performance Stock Unit) 107건 등이다.

총수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주식지급 약정은 총 16건으로, 6개 집단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화과 유진그룹은 지난해 총수 2세와 RSU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RSU는 글로벌 기업에서 전문경영인 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국내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에게 집중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다르고 사실상 승계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계열사 지분율 상승으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총수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크래프톤(29.8%), 부영(23.1%), 반도홀딩스(19.3%) 순이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식량안보 강화 해법 찾기

전문가·산업계 정책 제언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열린 이 포럼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비롯해,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목적이다. 행사에서는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측으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 및 공급 안정화 방안(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권재복 팬오션(주)한국사무소 소장)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다. 또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산업·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쿠팡 하도급 의혹, 동의를결 착수

공정위, 제재 대신 동의를결 착수
PB상품 계약서에 판촉비 분담 규정
수급업체 대상 30억 규모 상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제재 대신 동의를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쿠팡은 PB(Private Brand)상품 계약서에 판촉비 분담을 명시하고, 30억원 규모의 상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쿠팡과 씨피엘비(이하 쿠팡)가 신청한 하도급 동의를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로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과 판매사업을 승계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PB 상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제공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쿠팡은 지난 3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를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를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거래질서 개

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시정방안 집행에 집중하는 제도다.

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기명 날인 절차 구비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 명시 △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 명시(쿠팡 최소 50% 부담)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 고려해 동의를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를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매립지의 변신’… 아마추어 골프 격전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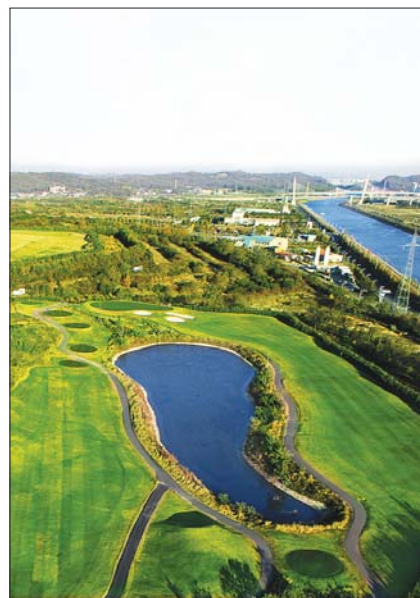
제6회 드림파크배 대회 개최

종전의 폐기물 매립지에서 골프장으로 거듭난 부지에서 지난 9일 전국 골프 아마추어선수권의 막이 올랐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회 개최를 통해 인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저변 확대까지 동시에 꾀하고 있다.

공사는 오는 12일까지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에서 '제6회 드림파크배 전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은 폐기물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부지를 사후관리 기반으로 조성한 골프장이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골프경기와 US여자오픈 예선 등 국제 경기를 개최한 36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다. 종료 매립지를 활용한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내 골프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익금 전액은 매립지 사후관리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된다. 수익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매립지 운영에도 기여하고



인천 서구 소재 드림파크 컨트리클럽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한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발된 KGA 랭킹 상위 아마추어 선수 176명(남자부 88명, 여자부 88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기존 3라운드에서 4라운드로 확대 운영되며, 대한골프협회 공식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